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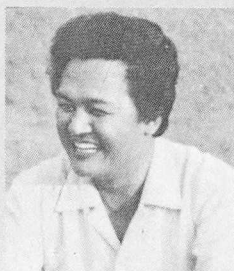
김인호 사양칼럼

사랑이 샘솟는 난소에 난자를 곱게 안은 난포가 점점 커질 때면 “지금은 사랑을 속삭일 때”라는 메시지가 뇌하수체에 전달된다. 이는 난포액 내 「에스트로겐」이라는 발정호르몬이 보내는 메시지이다.

사랑을 속삭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신체 각 부위는 사랑을 속삭이기에 알맞은 여건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온 전신의 몸부림이다. 이럴 때면, 양돈장이 떠나갈 듯한 사자의 목청을 닮은 젓뎨 에미돼지의 “꿀”소리 우렁찬 포효가 있게 되고, 식음을 전폐한 좃점없는 눈빛으로 누군가를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하게 되고, 동료들의 허구리를 꼭 껴안아 보고 싶게 되고, 낭군이 있는 담벽을 뛰어넘어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지게 된다.

돼지사양에 있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1차 관문은 교배적기 포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배적기 포착은 앞서 말한 번식 암돼지의 평상시 습관태도에 변화가 먼저 발견되게 되는데, 2차 성증이 나타나는 외음부 질점막 상태의 변화 추이를 보가며 하여야 한다.

“지금은 사랑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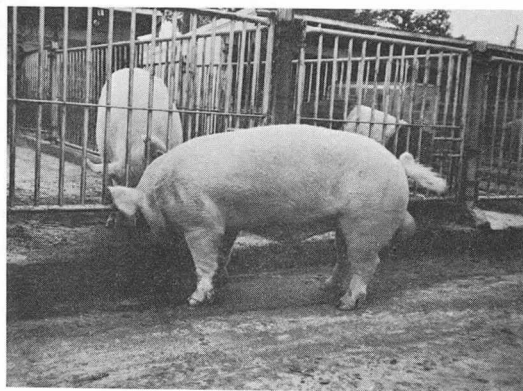
김인호
(송원축산 이사)

“지금은 사랑할 때”라는 메시지가 2~3일 그치지 않고 전달되면, 질점막에 홍색 충혈이 자궁쪽(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질점막 중심쪽)에서부터 일기 시작하여 외음부 끝쪽까지 홍색 충혈(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질점막 전체)이 진행되다가(이 때 외음부가 가장 크게 부어 오름), 홍색 충혈이 중심부(자궁쪽)에서부터 핑그빛으로 퇴색되기 시작하는데, 교배허용시기는 홍색 충혈이 질점막 가장자리에 「원형반지」모양으로 있을 때이다. 이 때를 교배

적기로 포착하여 짝을 지어주며 거의 실수가 없게 된다. 홍색충혈도가 「원형반지」모양으로 된 상태라면 외음부가 빨갛게 부어 올랐다가 쭈그러들기 시작할 때이다.

이와같이 질점막 관찰을 이용한 교배적기 포착은 처녀 후보돈에서 부터 실시함이 좋다.

수정되는 산자수의 90%는 1차 교배에서 결정된다. 1차교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교배허용상태의 시기라면 난소에는 난포들이 배란되기



”

사랑하고 싶을때 짹을 지어
주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라는
보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고 싶다는
고백(포효·서성거림·껴안는 모습→승가행위)이
있을때, 둘러보고 질점막을 잘 관찰하여
(홍색 원형 반지꼴) 교배 1차 시기에
최선의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

에 가장 알맞은 상태(난포막이
얇아져 있음)로 성숙돼 있을
즈음이다. 이런 경우라면, 난소
발육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허
구리쪽 등을 누르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강하게 버티는
반응(교배 허용 모습)이 있게
된다.

사랑하고 싶을 때 짹을 지어
주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라
는 보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
로, 사랑하고 싶다는 고백(포
효·서성거림·껴안는 모습
→승가행위)이 있을 때, 둘러

보고 질점막을 잘 관찰하여(홍
색 원형 반지꼴) 교배 1차시기
에 최선의 조치를 해주어야 한
다. 이러한 배려라면, 복당 17
두 생산을 약속받게 된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양돈경
기가 불투명해진 요즈음 사양
관리를 등한시 하기 쉬우나, 그
렇게 되면 그 만큼 생산성 저
하에서 오는 적자요인이 배가
되므로, 이런때 일수록 철저한
사양관리를 해주고, 때를 같이
하여 이웃 양돈인과 양돈 불경
기를 풀어나갈 대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게 바람직하다.
불경기 일수록 밝은 표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를 조성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다면,
“지금은 사랑할 때”라는 메시
지가 뇌하수체에 전달되어, 사
랑을 고백하는 쫓뎀 에미돼지
가(이유후 5일째) 있는지 잘
살펴보자. **善野**

〈필자 연락처 : (0636)52-26
77~9〉